

아리타초 역사민속자료관 동관

아리타초 역사민속자료관은 1978년 이즈미야마 자석장 근처에 개관했습니다. 이즈미야마에서 1600년대 초에 발견된 자석 매장지는 아리타 지역의 자기 산업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자료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도구와 물품 등 인공 유물을 전시하며, 마을 자기 생산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도구 중 일부는 에도 시대(1603~1868)에 사용된 것이지만, 지금도 아리타 지역의 도자기 공방에서 비슷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시에서는 아리타 도자 미술관이 소장한 접시 그림을 바탕으로 아리타 도자기가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규칙을 엄격하게 정한 분업체 하에서 장인들은 생산의 한 부분에만 특화될 수 있었습니다. 번의 허가증은 채석에서 시작하여 흙 만들기, 성형, 그림 및 무늬를 그려 다시 굽기에 이르기까지 도자기에 관한 다양한 생산 업무를 규제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에도 막부가 무너지면서 1870년대에 번 제도가 해체되자 허가증도 무의미해졌습니다. 우와에(*overglaze enamel painting*, 상회)만을 전문으로 하던 이마에몬 가마 등도 포함하여 대부분의 도자기 공방은 생산 공정을 확대해 자체적으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국내는 금속이 부족한 상황에 빠졌고, 이로 인해 특이한 도자기 시장이 생겨났습니다. 아리타 지역의 도자기 공방에서는 우편함과 병, 캔, 동전, 심지어는 수류탄까지도 자기로 만들었습니다.

부속된 아리타 도자기 참고관은 1983년에 개관했습니다. 100만 점이 넘는 소장품 중 1,000점 이상의 도자기 파편이 연대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